



그 함성 그대로... 울돌목 명랑대첩 재현 지난 28일 오후 명랑대첩축제가 열린 해남과 진도의 울돌목에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3척으로 일본 전함 133척을 격파한 전투가 재현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택시 카드결제 힘든 국제도시 광주

결제기 설치 57% 광역시 최하위
예산 부족 보급사업 잇단 중단
시민·외지인 이용 불편 호소

광주지역 택시 10대 중 4대에 카드결제기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민선 5기들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광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시와 카드결제기 설치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4기인 지난 2008년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사업을 시행하면서 10억여원을 들여 택시 1500대에 카드결제기(네비게이션 기능 등 포함·1대당 70만원 지원)를 설치했으나 단말기 불량·노후·시스템 에러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택시 카

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카드결제기 설치 업체는 협약 이후 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불량 카드결제기 1500대를 포함해 총 2459대의 카드결제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 올 9월 현재 장착률을 전년 51%에서 57%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후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또 한번 사업이 중단됐다.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지난해 말부터 예산부서에 3억5000만원(1대당 10만원)이면 나머지 택시 3500대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할 수 있다며 수차례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때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카드결제기 설치업체도 '광주시가 추가 예산배정만 약속하면 우선 설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결제기 장착이 늦어지면서 광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10월호

9월 27일 발매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뜨거운 커피홀릭

특집

'마시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된 커피의 세계 탐구

- 음료산업, 커피에 종속되다
- 카페, 문화가 되다
- 문화평론가 김갑수의 '커피 예찬'

기획

시민들은 문화가 필요해

광주 전남 문화지수 점점과 대안 문화도시 이끈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 도시의 오아시스,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전남 한우농가 덩치 커진다

영세농 2년새 1만호 '줄폐업' 불구 규모화로 사육두수 제자리

전남지역 소규모 한우농가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우 사육의 규모화'에 따라 전체 사육두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여파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산 원가 절감 등을 위해 농가들이 규모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에 따라 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금 접수를 한 결과(잠정) 3만2656건이 접수됐고, 2477 농가는 폐업을 희망했다. 직접지불제는 한우가 1만6463건에 9만1859마리, 송아지는 1만6193건에 5만4818마리에 대해 접수됐다. 폐업 신청농가가 사육중인 한우는 3만9196마리, 평균 15.8마리로 영세 축산농가가 대부분 신청했음을 보여준다. 폐업지원금은 수소는 마리당 81만1000원, 암소는 90만원이며 직

불금은 한우는 1만3500원, 송아지는 5만7000원이 지급된다. 이들 신청 농가에 지급할 사업비 규모는 직불금이 43억원, 폐업지원금은 335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농가 중 사육조건 불리지역, 소규모 농가, 시설노후화 등을 고려해 지급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폐업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한우 두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전남지역 한우는 52만8000마리였던 것이 지난 6월 현재 51만 마리로 1만8000마리가 줄어든 데 그쳤다. 이는 20두 이하 사육 농가들의 잇단 폐업 속에서도 20두 이상 생산하는 한우 농가들의 사육 두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20마리 미만을 키우는 농가는 2만7000호였고, 이들 농가는 15만7000 마리를 생산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2만4000호 14만

마리, 지난 6월 1만9000호 11만3000마리로 줄고 있다. 반면, 준전업규모(20마리 이상) 농가는 사육규모 증가로 전입화가 이뤄지고 있다. 2011년 7000호에 37만1000마리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7100호 39만마리, 지난 6월 7300호 39만7000마리로 늘고 있다. 20마리 미만 농가에서 키우는 소가 2011년에 비해 4만4000마리 줄었지만 같은 기간 준전업규모 농가에서 2만6000마리를 더 키워 전남지역 전체 한우 두수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도	20두미만 사육농가 한우	20두이상 사육농가 한우
2011년	15만7000	37만1000
2013년 6월	11만3000	39만7000
비교	-4만4000	2만6000

※6월현재 2011년에 비해 1만8000마리 감소

유진룡 "수영대회·문화전당 국회 결정 따를 것"

강운태시장과 회동서 밝혀...광주시·문화부 갈등 해소 주목

강운태 광주시장과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이 직접 만나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안 통과 등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시장은 두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며, 유 장관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지난 28일 광주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 시장 초청 환영 오찬 직후 유 장관을 만나 1시간여 동안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만남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선 "대

회의한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의 문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등을 놓고 양 기관이 두 달 넘게 갈등을 빚어오다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약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예향 초대석

「정글만리」로 저력 다시 확인시켜준
승주 출신 작가 조정래의
문화관과 창작 뒷이야기

마주앉은 책과 삶 뛰어난 그림 이야기꾼 **이주헌**
그림 보는 눈을 밝혀준 책들과 좋은 그림에 대한 생각

이달의 아티스트 "전라도 DNA 자랑스럽다"
한국 남성들에게 멋을 입힌 **디자이너 장광호**

이시람 형님리더십으로 LG트윈스를 11년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시킨
광주출신 감독 김기태가 말하는 '좋은 야구'

첩처 투어 역사를 마주하는
성찰의 도시, **베를린**

문화공간 티벳불교의 깊은 정신과 문화를 만나다
대원사 티벳불교박물관

스타 데이트 '너목들' 차변 넘어
'이젠 나쁜남자' 욕심내는데
배우 윤상현

화보 사진에 담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문화전당 '아트광주13'
발전 가능성
보여줬다

아트 & 퍼플 고전발레 한국적 안무로 재 탄생시켜준
발레 안무가 문병남

문화동행, 편편 클럽 '바람 좋은 날' 바다로 가는 사나이들
광주윈드서핑 연합